

歐陽修의 《歸田錄》의 체재와 서술방식 研究

李承信*

<목 차>

1. 들어가며
2. 《歸田錄》의 史的·文學的 가치
3. 《歸田錄》의 체재와 서술 방식
 - 3.1. 인물과 체재의 선택과 집중
 - 3.2. 대화체와 口語의 多用
4. 나가며

1. 들어가며

歐陽修는 중국문학의 다방면에서 공헌도가 지대한 인물이며, 특히 그가 散文 文體의 변화와 발전에서 거둔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그는 고문 운동을 주도하며 자신의 문학 이론을 실천했고, 문장 안에서 진지하고 근엄한 창작 정신과 다양한 서술기법 및 수사기교를 발휘했다. 이에 그의 문장은 碑誌, 序, 論辨, 雜記, 祭文 등 散文 文體 면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고, 학술성, 실용성, 문학성, 역사성을 겸비했다.¹⁾ 이 밖에 歐陽修의 《六一詩話》는 중국문학사상 최초의 '詩話'로, 시가를 서술하고 詩論과 詩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閑談을 삽입하여 종전의 문체와는 다른 수필체의 서술을 했다. 그리고 《歸田錄》은 송대 역사왜문을 다루며 특정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써가는 수필 형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외래교수

1) 李承信, <歐陽修《居士集》의 散文 文體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식이라는 점에서 중국문학사상 최초의 '筆記'로 분류된다. 《六一詩話》와 《歸田錄》 모두 이전의 전문 저서의 문체와는 다른 자유롭고 유연한 서술방식을 취한 점에서 유사하며 歐陽修의 산문문체발전사상의 지위와 기여도를 가늠하게 한다.²⁾

특히, 《歸田錄》은 治平 4년(1067) 歐陽修의 나이 60세에 지어진 것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관직에서 물러날 무렵에 쓴 만년의 작품이다.³⁾ 歐陽修가 오랜 관직 생활 가운데 慶曆新政을 중심으로 정치와 문학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연박한 학식과 경험, 성숙함과 노련함의 바탕 위에 시도한 새로운 형식의 문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는 충분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歸田錄》의 문체적 특징에 주목하고 중국산문사상에 미친 영향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歸田錄》의 史料的·文學的 가치

《歸田錄》은 宋代의 황제 및 조정의 관료, 문인·사대부의 언행과 일화, 정치와 제도, 문학과 예술, 해학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歐陽修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일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해학과 풍자가 담긴 일화들이며 총 115조로 구성되어 있다.⁴⁾

2) 郭紹虞는 《宋詩話考》에서 송대 張邦基의 《墨莊漫錄》의 기록을 근거로 歐陽修의 작품 《雜書》를 《六一詩話》의 전신으로 본다. 《雜書》는 실제로 《歐陽修全集》에 수록된 《試筆》과 그가 편찬한 《六一詩話》의 근거가 되며 《歸田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六一詩話》는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이후의 내용이 일부 보이는 점, 《雜書》에서 《歸田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모아 책을 펴낼 때에 '詩話'라고 이름을 붙인 점, 歐陽修가 《歸田錄》의 自序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한가롭게 거할 때에 보려고 준비한 것(錄之以備閑居之覽)'이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試筆》, 《六一詩話》, 《歸田錄》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歸田錄·自序》: 治平四年九月乙未廬陵歐陽修序.

4) 《歸田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중국에서 葉桂剛의 《中國古代十代軼事小說賞析》, 徐世瑋 選譯 《歸田錄·澠水燕談錄》, 沈履傳 註譯 《唐宋筆記小

歐陽修는 《歸田錄》의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歸田錄》이란 조정의 전해오는 일 중에서 사관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사대부들과 담소를 나눈 뒤에 기록할만한 것들을 기록하여 한가로이 거할 때 보려고 갖추어 놓았다.⁵⁾

그는 또 《歸田錄·卷二》 말미의 後序에서 唐 李肇가 <國史補序>에서 한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다.

唐 李肇는 <國史補序>에서 “보용을 말하며 귀신을 서술하고 꿈 해몽을 기술하고 은폐에 가까운 일들은 모두 버리고, 사실을 기록하고 물리를 탐구하며 의혹을 분별하고 권계를 드러내며 풍속을 모아 담소에 보탬이 되는 것을 적었다.”라고 말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대개 이조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이조와는 약간 다르니, 다른 사람의 과오를 쓰지 않았다. 나의 직위가 사관이 아니어서 악을 덮고 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는 군자의 뜻이다. 읽어보는 이는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⁶⁾

歐陽修는 일찍이 《新唐書》와 《新五代史》 편찬에 사관의 자격으로 참여한 인물이며⁷⁾ 이 두 史書 모두 正史 二十四史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사관으로서의 자질과 업적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史書의 객관성과 褒貶의 의미를 누구보다 숙지했음이 틀림없다. 이상의 예문에서 歐陽修가 인물들을 관

說釋譯》 등이 출간되었는데, 주로 전편이 아닌 일부분에 대한 백화문 번역과 주역을 한 것이다. 이 외에 寶玉璽의 <歐陽修《歸田錄》讀釋>(《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2006), 邱昌員·袁娉의 <歐陽修《歸田錄》述論>(《贛南師範學院學報》 第1期, 2010), 譚磊의 <試論《歸田錄》對歐陽修史傳文學的補完>(《古代文學研究》 第30期, 2014) 등의 관련 논문 몇 편이 나온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강민경의 《歸田錄》 번역서가 있다.

- 5) 《歸田錄·自序》: 歸田錄者, 朝廷之遺事, 史官之所不記, 與夫士大夫笑談之餘而可錄者, 錄之以備閑居之覽也.
- 6) 《歸田錄·後序》: 唐李肇國史補序云, 言報應, 叙鬼神, 述夢朴, 近帷箔, 悉去之, 紀事實, 探物理, 辨疑惑, 示勸戒, 采風俗, 助談笑, 則書之. 余之所錄, 大抵以肇爲法, 而小異于肇者, 不書人之過惡, 以謂職非史官, 而掩惡揚善者, 君子之志也. 覽者詳之.
- 7) 《宋史·志第一天文一》: 今合累朝史臣所錄爲一志, 而取歐陽修新唐書五代史記爲法, 凡徵驗之說有涉於傳會, 咸削而不書, 歸於傳信而已矣.

찰하고 그 중 기록할만한 인물들을 선택적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肇는 허황된 이야기나 은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며 의혹을 풀어주고 권계를 보여주며 풍속을 채집하고 담소거리를 제공하려 했고, 歐陽修는 이러한 李肇의 서술 방식을 수용했다. 다만, 남의 과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사관의 신분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었다. 歐陽修는 고관대작의 지위나 세상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접고 부정적인 내용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즉, 사관의 春秋筆法을 의식적으로 쓰려 하지 않았고 조화로운 긍정적 세계관을 그려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지는 歐陽修의 史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사관의褒貶의 정신을 인정한 것이다. 歐陽修는 당시 《新五代史》와 《新唐書》 등 史書의 편찬에 참여했던 史學者이기도 했지만, 《歸田錄》이 史書와는 분명히 다른 체례임을 밝혔던 것이다. 이에 그가 진정으로 史書가 아닌 완전히 다른 형식을 취해 《歸田錄》을 쓸 만한 능력 또한 충분히 갖추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自序와 後序에서 史書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산문 문체의 발전에도 드러낼만한 기여를 한 歐陽修가 굳이 史書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하는 새로운 형식의 체재를 고안해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점에서 歐陽修가 기록되지 않았던 송나라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했을 거라고 유추해본다. 歐陽修는 평소 신중하고 근엄한 태도로 문장을 쓰는 인물로, 오랜 숙고와 수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⁸⁾ 따라서, 그가 새로운 형식의 체재를 고안해 내어 그가 살던 당시 송나라의 역사를 말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그가 고향 潁州로 돌아가기 전 관직에 있었을 때 이미 《歸田錄》의 序文을 썼던 점⁹⁾, 그리고 사관으로서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當

8) 《歸田錄·七十七條》: 余平生所作文章, 多在上三, 乃馬上枕上則上也. 蓋惟此尤可以屬思爾.

9) 歐陽修는 喜寧 4년(1071)에 고향 潁州로 돌아갔는데, 《歸田錄·自序》 후미에 “治平 4년(1067) 9월 乙未에 廬陵 사람 歐陽修가 쓴다(治平四年九月乙未廬陵歐陽修序)”라고 한 부분에서 《歸田錄》은 1067년에 완성했으므로, 관직에서 아직 물러나지 않을 때 쓴 것이다.

대의 기록을 염두에 둔 점, 모든 등장인물과 관련된 일화 및 전장 제도 등이宋代인 점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王明清의 《揮塵後錄》의 기록을 보면 歐陽修가 《歸田錄》을 완성한 직후 아직 작품의 내용이 알려지기 직전에 神宗이 그가 쓴 序文을 읽고 급히 검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歐陽公의 《歸田錄》이 막 완성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序가 먼저 전해져 神宗이 그것을 보고는 급히 중사에게 가져와야한다고 명을 내렸다. 이 때 歐陽修는 이미 사직하고 潁州에 있었는데, 그간 기록한 것 중 널리 퍼지면 안 될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책의 내용이 너무 적을 것을 염려하여 잡기, 해학 등의 한가로운 이야기로 책의 분량을 채워 넣고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써서 진상하고 舊本도 감히 보존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모두 進上本으로 원래 책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¹⁰⁾

신종이 사전에 서문을 먼저 읽고 본문을 보고자 하니, 이에 구양수가 상당부분 삭제하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잡기와 해학거리의 고사로 增補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 이미 관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지만 歐陽修가 保身하기 위해 본래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後序에서 <國史補序>의 말을 인용하여 역사에 관한 기록이라는 점, 그리고 진정한 史書는 褒貶의 요소를 갖추어야한다는 인식 하에 긍정적인 부분만을 기술하여 善만을 드러내었다고 천명함으로써 史書가 아님을 명확히 제시했다. 따라서, 《歸田錄》은 史書는 아니지만, 宋代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歸田錄》을 필기소설류로 보는 견해 역시 적지 않다. 역사쇄문필기는 당대부터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野史와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일까지 잡다하게 수록했다. 이러한 역사쇄문필기의 체제는 송대에 이르러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통해 확대 발전했고, 과거 제도에 관심을 둔 士

10) 《揮塵後錄》: 歐陽公歸田錄初成未出而序先傳, 神宗見之, 遽命中使宜取時公已致仕在潁州, 以其間所記述有未欲廣者, 因盡刪去之. 又惡其太少, 則雜記戲笑不急之事, 而充滿其卷帙, 既繕寫進入, 而舊本亦不敢存. 今世之所有皆進本, 而元書蓋未嘗存之.

11) 강민경, 《歸田錄》(서울: 학고방, 2008) p.18 인용.

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었다. 송대의 문장가들은 풍속과 인정 등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섬세하게 기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歸田錄》에는 다양한 인물들에 얽힌 일화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으며, 문학적 표현 수법을 통해 해석적인 일화들과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이 매우 상세하게 전해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바로 그 일화들의 진실성, 사실성에 있다. 《歸田錄》에 담겨져 있는 인물, 전장제도, 일화 등의 내용은 일체의 사실이다. 인물과 사건의 사실성과 진실성은 소설과 구분되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歸田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기록에 가까운 체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것이다. 司馬遷의 《史記》에서 보이는 역사성과 문학적 성 역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歸田錄》의 문학적 성과 역사성 역시 훌륭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학적 표현 수법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한 진실성과 사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3. 《歸田錄》의 체재와 서술방식

3.1. 인물과 제재의 선택과 집중

최초의 《歸田錄》은 《宋史·藝文志》에 의하면 卷八로 추정되지만,¹²⁾ 현재 《歸田錄》은 卷一, 卷二 두 권으로 전해진다. 卷一에서는 주로 황제와 조정 대신, 나라와 관련된 일화를 내용으로 다루고, 卷二에서는 사대부의 일상이나 사회 제도와 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원문을 근거로 본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및 일화들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2) 《宋史·志·第一百五十六 藝文二》에서는 “歐陽修의 《歸田錄》은 八卷이다(歐陽修歸田錄八卷).”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直齋書錄解題》와 《四庫全書總目》 등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歸田錄》은 모두 二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一	卷二
皇帝	太祖, 太宗, 仁宗, 眞宗	眞宗
官僚	贊寧, 陳堯佐, 魯宗道, 孫何, 李庶幾, 丁度, 晁宗慤, 中立, 錢若水, 謝希深, 楊億, 郭進, 宋祁, 田況, 王君貺, 寇準, 拯, 王曾, 李沆, 陶穀, 薛奎, 賈昌朝, 李漢超, 陳堯咨, 陳執中, 文彥博, 富弼, 王禹偁, 欽若, 皮仲容, 宋白, 賈黃中, 李至, 呂蒙正, 蘇易簡, 劉子儀, 丁謂, 張齊賢, 晏殊, 宋綬, 夏竦, 曹利用, 羅崇勛, 宋庠, 曹彬, 錢惟演, 李照, 杜衍, 李昉, 張亢, 王琪, 鄭戡, 孫何, 孫僅, 胡瑗	趙元昊, 晏殊, 寇準, 楊億, 田況, 梅堯臣, 錢惟演, 謝希深, 王溥, 富弼, 王曾, 宋庠, 趙槩, 胡宿, 吳奎, 蔡襄, 王珪, 盛度, 丁謂, 呂蒙正, 趙元儼(燕王), 趙允良(華原郡王), 賈黯, 程戡, 王素, 楊懷敏, 錢昆, 韓絳, 范鎮, 梅穆之, 張堯封, 章得象, 石中立, 石延年, 劉潛, 王隨, 韓億, 李仲容, 王臻, 陳知微, 汪白青, 陽楷
기타	馮道(五代), 和凝(五代), 預告	錢, 年號, 官制, 臘茶, 阿保機, 李成, 巨然, 包鼎趙昌, 趙世長, 賈玄, 林逋, 梅堯臣의 妻

<표1>

卷一에서 太祖, 太宗, 仁宗, 眞宗 皇帝 등 송나라 개국 초기부터 제 4대 황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직책에 해당하는 조정의 관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 陳堯佐, 孫何, 李庶幾, 丁度, 石中立, 錢若水, 謝希深, 楊億, 宋祁, 田況, 王君貺, 寇準, 馮拯, 王曾, 薛奎, 陳堯咨, 文彥博, 富弼, 王禹偁, 王欽若, 晏殊, 錢惟演, 杜衍, 李昉, 胡瑗 등은 당시 송나라의 정치 사회와 학술 문화를 주도하던 인물로 거의 대부분 宋史에 기록된 이들이다. 卷二에서는 주로 卷一에 말한 조정 관료들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 외 조정 대신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趙元昊, 晏殊, 寇準, 楊億, 田況, 梅堯臣, 錢惟演, 謝希深, 富弼, 王曾, 宋庠, 呂蒙正, 范鎮, 石延年 등도 마찬가지로 宋史에 기록된 이들¹³⁾, 당시 송나라를 주도한 중요한

13) <宋史>는 本紀 47권, 志 162권, 表 32권, 列傳 255권의 총 49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치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다. 이 외에 卷二에서는 동전, 연호, 官制, 臘茶 등과 관련된 일들과 여인이나 기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적고 있다.¹⁴⁾

歐陽修가 인물과 이야기들을 선택하고 기술함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임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이상과 같은 구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歸田錄》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인 작품이며 붓 가는대로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짜임새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든 볼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인물과 다른 사건들의 취사선택 문제에 착안하면 歐陽修의 개인적 의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구양수가 활동한 시기와 본서를 집필한 시기는 모두 송나라 제 6대 황제 神宗 때였고, 바로 그 이전 제 5대 황제는 英宗이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英宗과 神宗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대로 歐陽修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데만 그쳤다면 오히려 神宗과 英宗과 관련된 일들이 자연스럽게 본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당시의 황제와 관련된 일들을 적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그리고 神宗의 검열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序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오히려 卷二 부분에 다양하고 잡다한 일들을 덧붙였다고 언급한 바, 아마도 당

권478~483의 6권은 사실상 世家라 할 수 있다. 원의 阿魯圖·托克托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했다. 1343년에 시작하여 1345년에 완성했다. 北宋 이래 각 황제마다 편찬한 국사나 實錄·日曆 등을 기초로 했으며, 二十四史 가운데 단시일에 완성된 가장 권수가 많은 史書이다. 송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상황을 비교적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며, 광범위하고 풍부한 내용과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2,000 여명에 달하는 인물과 그 사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歸田錄》에 등장하는 北宋 시기 인물들의 사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 14) 《宋史》에서 《歸田錄》에 등장하는 인물, 일화, 전장 제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本紀와 列傳 부분이다. 먼저, 황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卷一 本紀第一 太祖一, 卷二 本紀第二 太祖二, 卷三 本紀第三 太祖三, 卷四 本紀第四 太宗一, 卷五 本紀第五 太宗二, 卷六 本紀第六 眞宗一, 卷七 本紀第七 眞宗二, 卷八 本紀第八 眞宗三, 卷九 本紀第九 仁宗一, 卷十 本紀第十 仁宗二, 卷十一 本紀第十一 仁宗三, 卷十二 本紀第十二 仁宗四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정관료와 관련된 부분은 卷二百四十二 列傳第一부터 卷四百八十四 列傳第二百四十三 사이에 다수가 보이고, 이민족과 관련된 일들은 卷四百八十五 列傳第二百四十四 外國一부터 卷四百九十六 列傳第二百五十五 사이에 섞여 있다. 기타 전장 제도 등과 관련된 일들은 卷四十八 志第一부터 卷四十八 志第一百六十二 부분에서 보이는데, 후대의 평가자들은 志의 사료적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시 황제와 관련된 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그 이전의 황제 太祖, 太宗, 仁宗, 眞宗과 관련된 일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卷一과 卷二의 여러 조목에서 수차례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또한 楊億과 丁謂와 같은 경우는 황제와 같은 빈도로 여러 조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晏殊, 寇準, 田況, 錢惟演, 謝希深, 宋庠, 石中立 등의 인물 역시 卷一에 이어 卷二에서 두 번 이상 등장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人名	卷一	卷二	佚文
太祖	10條, 16條, 22條, 28條, 51條	102條	14條, 16條
太宗	5條, 38條, 51條, 60條	75條, 83條, 93條, 96條	30條, 40條
仁宗	4條, 17條, 25條, 29條, 30條, 44條, 45條	90條	5條, 11條, 32條
眞宗	4條, 13條, 19條, 20條, 35條, 36條, 47條, 59條	61條, 65條, 91條, 96條, 109條	9條, 27條, 28條, 38條
楊億	7條, 9條, 19條, 27條, 57條, 58條	67條, 101條	
晏殊	41條, 52條	63條	
寇準	36條, 50條	67條, 111條	39條
田況	13條	73條	
錢惟演	48條	77條, 80條	
謝希深	9條	77條	
宋庠	45條	84條	
丁謂	18條, 26條, 27條, 40條	61條, 91條	2條, 9條, 29條
石中立	7條	107條	
王曾	20條		11條
...

이상의 <표>에서 보면, 황제의 경우 이전 시대의 송대 황제만 다루고 있으며, 조정 관료의 경우 대부분 歐陽修와 동시대를 공유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楊億과 丁謂가 등장하는 조목이 특히 많은데, 주요 내용이 인재등용과 선발에 관한 건이다.¹⁵⁾ 이는 歐陽修가 송대 사회와 정치의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시급했던 사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부분인 卷一에서는 비교적 무게감 있는 인물과 사적들을 다루고, 뒷부분인 卷二에서는 卷一과 동일한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차례 여러 조목에서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여성과 기타 인물, 제도와 문물 등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인물과 관련된 일들을 여러 조목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방법은 司馬遷이 《史記》에서 사용한 ‘互見法’이다.¹⁶⁾ 일례로 魯宗道에 관한 조목을 살펴보면, 四條와 十一條 두 군데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먼저, 四條에서는 魯宗道를 ‘魯公’ 혹은 ‘魯肅簡公’으로 호칭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신하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魯肅簡公은 가끔 옷을 갈아입고 미행해서 그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하루는 眞宗이 魯公을 급히 불러 뭔가 물어보려고 했다. 中使가 魯公의 집 문에 이르렀지만 魯公은 없었다. 얼마 후 公이 인화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中使가 급하게 들어와 아뢰면서 공과 약조하며 말했다. “황제께서 만약 공께서 늦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다면, 무슨 일을 핑계로 늦게 왔다고 아뢰어야 할까요? 다행히 먼저 알려주신다면 그 말과 다름이 없게 아뢰고자 합니다.” 魯公은 “사실대로 아뢰시오.”라고 했다. 中使는 “그러면 마땅히 죄를 짓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15) 屈斌, <歐陽修《歸田錄》中的“人才夢”> (《文史天地》 第2期, 2014) 참조.

16) ‘互見’은 한 인물과 한 사건을 여러 편에 분산시켜서 엮갈리게 표현하는 것이다. 본 전에서는 빠져 있으나 다른 전에서 다룸으로서 서로 보충되면서 본연의 인물이 더욱 빛날 수 있다. 예를 들어, 《史記》에서 秦나라의 이야기가 <秦本紀>와 <秦始皇本紀>에 두 번 등장한다. 始皇帝가 죽고 胡亥가 즉위하여 제후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趙高가 황제를 죽이고 子嬰를 황제로 세웠지만 한 달여 만에 제후가 그를 죽이고 진나라를 멸망시킨 일은 <秦本紀>에는 개괄하여 생략하고, <秦始皇本紀>에 자세히 서술했다. 보통 본전에는 그 인물을 긍정적으로 서술했고, 나머지 관련 인물을 서술하는 편에서 그 사람의 상이한 부분 등을 분산시켜 다루었다. 이것은 ‘互文’으로 상세함과 간략함을 절묘하게 엮어서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했다. 이에 魯公은 “술을 마시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임금을 속이는 것은 신하의 큰 죄이오.” 中使가 탄식하며 떠났다. 眞宗이 과연 묻자, 使者는 공이 대답하라는 대로 갖춰 아뢰었다.¹⁷⁾

眞宗이 급히 조정으로 魯肅簡公을 불러들여 하문하고자 했지만, 술 마시러 갔다 돌아왔으므로 得罪할 것이 걱정되어 使者가 일부러 거짓으로 그를 도와 모면하게 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강직하고 충직한 魯肅簡公은 이를 단번에 거절하고 사실대로 眞宗에게 아뢰며 진정한 충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眞宗은 그를 훌륭한 신하로 인정하고 크게 기용하고자 했다. 이 일화를 통해 魯肅簡公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十一條에 다시 나온다. 이야기의 골자는 역시 魯肅簡公의 대쪽 같은 강직하고 정직한 성품이다.

魯肅簡公은 조정에 있을 때 성품이 정직하고 강직하여 악행을 싫어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소인배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적으로 별명을 붙여 ‘魚頭’라고 했다. 당시는 章獻이 수렴 청정하던 때로, 魯肅簡公이 누차 국정에 도움을 주었고 바른 말과 올바른 논의를 펼쳐서 사대부들이 대부분 그를 칭송했다. 魯肅簡公이 죽고 난 뒤에 太常寺에서 그의 시호를 ‘剛簡’이라 했는데, 의론하는 자들은 그것이 훌륭한 시호인줄 모르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라 여겨 결국 ‘肅簡’으로 바꿨다. …… 모두 청렴하고 직언을 잘하여 한 시대의 名臣으로 생각했는데, 魯肅簡公이 특히 대쪽 같았으니 만약 그의 시호를 ‘剛簡’이라 했다면 더욱 사실에 부합했을 것이다.¹⁸⁾

魯肅簡公이 호칭을 얻게 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소인배들의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魯肅簡公의 시호를 ‘剛簡’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론하는

17) 《歸田錄·四條》: 魯肅簡公……公往往易服微行, 飲于其中。一日, 眞宗急召公, 將有所問。使者及門而公不在, 移時乃自仁和肆中飲歸。中使遽先入白, 乃與公約曰, 上若怪公來遲, 當托何事以對? 幸先見教, 冀不異同。公曰, 但以實告。中使曰, 然則當得罪。公曰, 飲酒人之常情, 欺君臣子之大罪也。中使嗟嘆而去。眞宗果問, 使者具如公對。

18) 《歸田錄·十一條》: 魯肅簡公立朝剛正, 嫉惡少容, 小人惡之, 私目爲魚頭。當章獻垂幕時, 屢有補益, 讜言正論, 士大夫多能道之。公既卒, 太常寺曰剛簡, 議者不知爲美諡, 以爲因諛譏之, 竟改曰肅簡。……皆以清節直道爲一時名臣, 而魯尤簡易, 若曰剛簡, 尤得其實也。

자들이 그의 진정한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魯肅簡公의 시호가 '剛簡'이었다면 사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란 歐陽修의 생각을 덧붙였다.

이와 같이 歐陽修는 《歸田錄》에서 실제의 사건과 인물들을 취사선택하여 효과적으로 개괄하고 구성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행적과 관계가 있는 일체의 사실들을 때때로 다른 인물 혹은 다른 상황을 기술하는 부분에 삽입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 이것이 곧 '互見法'으로, 예리하고 정확한 서술로 인해 본인에게 닥칠 정치상의 박해를 막고자 한 점, 역사적인 사건에는 여러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인물들에 대한 중복 서술을 활용한 점, 인물들에 대한 형상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문학적 장치이다.

3.2. 대화체와 口語의 多用

《歸田錄》 115條 중 인물 관련 조목 대부분에서 대화체를 쓰고 있는 점에 주목해본다. 실제로 살펴보면, 115條 가운데 80 여條 이상에서 대화체 문장이 보이며 비대화체인 경우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조목이 다수이다. 自序와 4條의 실례를 통해 살펴본다. 自序는 일반적으로 대화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歸田錄·自序》에서는 매우 긴 대화체 문장을 쓰고 있다.

소문을 듣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말했다. “어찌하여 그리 둘러대시오. 그대가 배우는 것은 인의를 닦아 업으로 삼고 《六經》을 암송하여 말을 하는 것이니, 스스로 기대하는 것이 의당 어떠하오? 그대는 요행히 군주의 인정을 받아 조정에서 벼슬을 얻어 국론을 함께 논의한 지 여태까지 8년이나 되었소. 때에 따라 몸을 떨쳐 일어나고 일을 당하면 발분하여 훌륭한 계책을 세울 수 없었는데도 나라에 보탬이 되었다 여기고, 또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어 세속을 따를 수도 없었소. 그래서 원망, 질시, 비방, 분노가 한 몸에 모이게 되어 못 소인배들에게 모욕을 당했소. 놀랜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못에서 일어나고 교룡과 악어와 같은 괴상한 짐승들이 바야흐로 머리를 나란히 하고, 틈을 엿보며

몸을 걸쳐두고 뛰어다니 하마터면 그대가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화를 겪을 뻔했소. 천자의 어진 성덕에 힘입어 측은하고 가엾게 여겨주시어 그대를 삼킬 듯 군침 흘리는 괴수의 입에서 빼내 살려주시고 남은 목숨을 하사해 주셨는데, 밝은 옥구슬을 토해내거나 옥환을 물고 와서 뱀과 피꼬리가 보답을 한 일을 본받으려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소.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에도 오히려 행한 일이 없었고 이제는 이미 늙고 병들었으니, 이는 죽을 때까지 군주의 은혜를 저버린 채 오랫동안 큰 농사를 지을 돈을 낭비한 격이니 그대는 곡물창고의 쥐 꼴이오. 그대를 위한 계책이라면 마땅히 나이가 많다고 임금에게 사직을 청하여 물러나 영화와 충애를 피하고 전원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친수를 다하는 것이라 하니, 그리하면 물러날 때를 알는 현명함을 지니기에는 충분하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배회하고 머뭇거리면서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니,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슨 전원으로 돌아가는 기록을 쓴 단 말이오.” 내가 일어나 사죄하며 “그대가 나를 책망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내 곧 돌아갈 것이니 그대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19)

전체 문장의 前六句와 後一句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화체로 되어 있다. 이러한 自序는 물론 뒤이은 모든 조목에서 대화체 수법은 주요 표현 기교로 다량 사용되고 있다.

錢思公이 西京 洛陽에 있을 때 동료에게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평생 독서를 좋아해서 앉으면 經書와 史書를 읽고 누우면 소설을 읽으며 측간에서는 짧은 글을 읽으니, 대개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다.” 謝希深도 “宋公垂와 함께 사서 편찬원에 있을 때, 매번 측간에 달려갈 때 마다 꼭 책을 끼고 갔고, 그 안에서 책을 암송하는 낭랑한 소리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다 들렸으니, 학문에 돈독한 것이 이와 같다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謝希深에게 “내가 평생에 지은 문장은 대부분 세 곳의 위에서 지은 것인데, 바로 말 위와 배개 위와 측간

19) <歸田錄·自序>: 有聞而誦余者曰, 何其泛哉. 子之所學者, 修仁義以爲業, 誦六經以爲言, 其自待者宜如何. 而幸蒙人主之知, 備位朝廷, 與聞國論者, 蓋八年于茲矣. 既不能因時奮身, 遇事發憤, 有所建明, 以爲補益, 又不能依阿取容, 以徇世俗. 使怨嫉謗怒, 叢于一身, 以受侮于群小. 當其驚風駭浪, 卒然起于不測之淵, 而蛟鱷鼉鼉之怪, 方駢首而聞伺, 乃措身其間, 以蹈必死之禍. 賴天子仁聖, 惻然哀憐, 脫于垂涎之口而活之, 以賜其餘生之命, 曾不聞吐珠銜環, 效蛇雀之報. 蓋方其壯也, 猶無所爲, 今既老且病矣, 是終負人主之恩, 而徒久費大農之錢, 爲太倉之鼠也. 爲子計者, 謂宜乞身于朝, 退避榮寵而優游田畝, 盡基天年, 猶足竊知止之賢名. 而乃裴回俯仰, 久之不決, 此而不思, 尙何歸田之錄乎. 余起而謝曰, 凡子之責我者皆是也, 吾其歸哉, 子姑待.

위에서라네.”라고 했다. 아마도 이 때에 유독 생각을 골똘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이 조목에서도 前二句와 後一句를 제외하곤 모두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체의 多用은 口語를 통해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歸田錄》은 口語의 기초 위에서 文言을 썼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유기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법으로 언어를 통해 심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歐陽修는 실제의 인물과 사건의 기초 하에 ‘互見法’과 口語로 된 대화체를 통해서 인물의 외모, 심리와 성격 묘사는 물론, 자신의 역사적 문학적 시각을 표출했다.

4. 나가며

蘇軾은 歐陽修가 司馬遷의 《史記》를 계승한 역사가라고 평한 바 있다.²¹⁾ 歐陽修가 《新唐書》와 《新五代史》 편찬에 참여한 바, 蘇軾은 이를 염두에 두고 평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비단 歐陽修가 집필에 참여한 史書만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듯하다. 강한 역사성과 문학적성을 수반하는 《歸田錄》에도 해당되는 평가로 보인다. 《歸田錄》에서 司馬遷이 紀傳體 史書에 시도한 인물과 제재의 선택과 집중, 互見法의 사용, 생동감 있는 口語로 된 대화체의 多用, 해학성과 풍자성 등이 선명하게 표출되어 있기 때문이

20) 《歸田錄·七十七條》: 錢思公……在西洛時嘗語僚屬, 言平生惟好讀書, 坐則讀經史, 臥則讀小說, 上厠則閱小辭, 蓋未嘗頃刻釋卷也. 謝希深亦言, 宋公垂同在史院, 每走厠, 必挾書以往, 諷誦之聲, 琅然聞于遠近, 其篤學如此. 余因謂希深曰, 余平生所作文章, 多在三上, 乃馬上枕上厠上也. 蓋惟此尤可以屬思爾.

21) 《蘇軾集·卷三十四》: 歐陽子論大道似韓愈, 論事似陸贄, 記事似司馬遷, 詩賦似李白. 此非餘言也. 天下之言也.

다. 다만, 歐陽修가 自序에서 밝혔듯이 春秋筆法을 따른 褒貶을 필수로 하는 역사가의 저술과는 달리, 비평이 없이 긍정적인 면만을 군자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歸田錄》은 결코 史書가 아니다. 또한, 《歸田錄》은 실재 인물과 분명한 사실만을 기록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코 풍부한 상상력을 엮어낸 小說도 아니다. 歐陽修는 史書도 아닌 小說도 아닌 자유로운 새로운 체제를 창안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當代의 역사를 《歸田錄》을 통하여 담아내기 위해서 극고의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 추후 神宗 검열 이전의 《歸田錄》의 원본만이 그 해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지금 현존하지 않는 송대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망라한 원본에는 이에 대한 온전하고 예리한 비평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후 관련된 문헌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연구를 지속한다면 歐陽修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존하는 當代의 역사를 기술하는 또 다른 형태의 체제를 찾아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郭紹虞, 《宋詩話考》, 北京: 中華書局, 1979.
- 脫脫, 阿魯圖 等,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歐陽修 撰, 林青 校注, 《歸田錄》, 北京: 三秦出版社, 2003.
- 歐陽修 著, 강민경 譯, 《歸田錄》, 서울: 학고방, 2008.
- 蘇軾 著, 《蘇軾文集校注》, 河北: 河北人民出版社, 2010.
- 馮程程, <論《六一詩話》>, 新疆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馮雪冬, <宋代筆記詞彙研究>, 上海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5.
- 李偉國, <《六一詩話》與《歸田錄》>,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1981.
- 傅民, <老人要寫“歸田錄”>, 《石油政工研究》 第30期, 2004.
- 張明華, <歐陽修《六一詩話》寫作原因探討>,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2004.

- 竇玉璽, <歐陽修《歸田錄》讀釋>,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 2006.
- 牛世建, <《歸田錄》疑問句研究>, 《現代語文(語言研究版)》第101期, 2007.
- 張海明, <《六一詩話》;《雜書》;《歸田錄》關係>, 《文學遺產》第06期, 2009.
- 邱昌員, 袁娉 <歐陽修《歸田錄》述論>, 《贛南師範學院學報》第1期, 2010.
- 趙國棟, 任利, <《歸田錄》茶文化述略>, 《蚕桑茶葉通訊》第42期, 2012.
- 許東海, <秋聲·諫諍·歸田——歐陽修《秋聲賦》、《歸田錄》中的諍臣與困境>, 《文學與文化》第2期, 2013.
- 屈斌, <歐陽修《歸田錄》中的“人才夢”>, 《文史天地》第2期, 2014.
- 譚磊, <試論《歸田錄》對歐陽修史傳文學的補完>, 《古代文學研究》第30期, 2014.
- 李佳, <歐陽修筆記《歸田錄》的獨特風貌與文化意義>,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第3期, 2016.

< Abstract >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Method of Description of *Guitianlu*(歸田錄)

Lee, Seungshin

This article analyses the Structure and method of description of *Guitianlu*(歸田錄). Ouyang Xiu(歐陽修) wrote politics, society, culture of Song(宋) dynasty in *Guitianlu*(歸田錄).

Ouyang Xiu(歐陽修) is an excellent writer and a great historian. But Ouyang Xiu(歐陽修) refused to be an objective historian. He refused to criticize other people's evil doings while focusing on their positive sides in *Guitianlu*(歸田錄). Ouyang Xiu(歐陽修) took Li Zhao(李肇)'s *Tang guoshi bu*(唐國史補) as a model, except that he did not write badly about the persons mentioned. Ouyang Xiu(歐陽修) has included a lot of things he personally had experienced as member of the court officialdom. For this reason his book has also a historiographical

value. It is due to the censorship who emperor of that time, Shenzong(神宗) did. Ouyang Xiu(歐陽修) deleted some records and added the other records for the censor before publication. Also, He used the methods called Hujianfa(互見法) and dialogic style and Vivid speech that Simaqian(司馬遷) used method of description in *Shiji*(史記).

Ouyang Xiu(歐陽修) tried a new writing style of Chinese Classical Prose by writing *Guitianlu*(歸田錄) that included the history of those days, Northern Song Dynasty. *Guitianlu*(歸田錄) is rich in literary value and historicity value.

Key words: structure, method of description, *Guitianlu*(歸田錄), Ouyang Xiu(歐陽修), *Shiji*(史記), Simaqian(司馬遷), Hujianfa(互見法), dialogic style, Vivid speech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31	2018. 11. 16	2018. 11. 28	2018. 11. 30	2018. 12. 31

